

아제르바이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86.6천 km ²	G D P	357억 달러 ('16)
인구	9.5백만 명	1 인 당 GDP	3,760달러 ('16)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zerbaijani Manat(AZN)
대외정책	EU와 협력 확대 추진	환율(달러당)	1.59

- 1991년 독립이후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2003년에 취임한 알리에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2016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에 대형 유전,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고, 서방에 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터키로 연결되는 송유관, 가스관을 건설하고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친서방정책을 추진하며 EU와 에너지, 운송 등 부문에서 경제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며, 2017년 2월 이후에는 기존에 1996년 체결된 EU-아제르바이잔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협력 체결이 논의되고 있음.
-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이 지속되며 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정치적,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는 대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제성장률	5.8	2.8	1.1	-2.4	1.4
소비자물가상승률	2.4	1.4	4.1	10.3	8.5
재정수지 / GDP	1.0	3.2	-6.8	-9.9	-4.0

자료: IMF

□ 국제 저유가 추세, 원유 생산 감소에 따라 2016년 경제성장률 -2.4%를 기록

○ 카스피해 지역의 새로운 유전의 개발 부진과 생산정체로 2010년 이후 원유 생산량이 감소추세임.

- 아제르바이잔 전체 원유생산의 80%를 생산하며, 매장량이 50억 배럴로 최대 유전인 ACG(Azeri-Chirag-Guneshli)의 생산 정체로 인해 원유 생산량은 2010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임.

- 원유 생산은 2010년 5,080만 톤을 생산한 이후 2015년 4,160만 톤, 2016년에는 4,100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국제유가의 안정에 따라 2017년에는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3%로 큰 폭으로 상승

○ 2016년 마나트 환율은 13.6% 평가절하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입품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3%로 상승하여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환율 하락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에 대응하여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의 3%에서 15%로 큰 폭으로 인상하였음.(2월: 3% → 5%, 3월: 5% → 7%, 8월: 7% → 9.5%, 9월: 9.5% → 15%)
- 2017년에는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환율이 안정되며 물가상승률도 8.5%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폭 크게 확대

- 국제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에너지 수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됨.
-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5년의 GDP 대비 -6.8%에서 2016년에는 -9.9%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4.0%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

- 아제르바이잔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90%, 재정의 60~70%, GDP의 1/3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에 따라 국내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은행 부문의 취약성

- 은행권 부실여신의 비중이 높으며, 경기침체로 2016년 한 해 동안 최소자본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10개 은행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
- 2016년 마나트 환율 평가절하에 따라 외화부채를 보유한 은행들의 비용

이 상승하여 경영여건이 악화되었음.

-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NPL 비율이 9%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IMF는 부실여신의 비중이 중앙은행의 발표보다 더욱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나. 성장 잠재력

□ 부존자원 개발 및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

- BP의 자료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확인매장량 70억 배럴(세계 확인매장량의 0.4%)에 달하는 원유와 1.1조 m³(세계 확인매장량의 0.6%) 규모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
- 최대 가스전인 샤 데니즈(Shah Deniz)-2 가스전이 2018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스 생산과 수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샤 데니즈 가스전은 BP, Statoil이 각각 25.5%, SOCAR(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 Lukoil, Total, NIOC 등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2단계 개발이 마무리되는 2018년부터는 연간 160억 m³의 가스 추가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아제르바이잔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TANAP(Trans-Anatolian Pipeline)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TANAP 가스관은 샤 데니즈에서 터키로 연결되는 가스관으로 SOCAR 59%, 터키 BOTAS 30%, BP 12%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TANAP 가스관은 향후 TAP(Trans-Adriatic Pipeline)와 연결되어 그리스, 알바니아, 이탈리아 등으로 가스를 공급하게 됨.

□ 운송인프라 발전을 통한 물류망 확대와 주변국들과의 협력 확대

- 2017년 바쿠-트빌리쉬-카르스(Baku - Tbilisi - Kars, BTK) 철도 완공을

통해 조지아를 거쳐 터키로 연결되는 물류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

- 이 철도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간의 협력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인도의 화물을 유치하여 운송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최대 물동량은 연 1,7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완공 초기에는 연 650만 톤의 화물과 100만 명의 여객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됨.
 - 철도 건설은 아제르바이잔 관광부문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6년 8월에는 바쿠에서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이란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러시아-아제르바이잔-이란-인도 간에 남북국제운송회랑 건설이 합의되었으며, 2017년 3월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됨.
- 참여국의 주요 항만 도시들인 상트페테르부르크-바쿠-차바하르항, 반다르아바스 항-뭄바이항을 연결하는 이 회랑을 통해 러시아와 중동,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망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에너지 수출소득을 활용한 경제, 사회 인프라 부문 투자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에너지수출소득으로 국부펀드(SOFAZ: State Oil Fund of Azerbaijan)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펀드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SOFAZ는 2016년 전체 지출액 90억 마나트 가운데 약 84%인 76억 마나트(약 48억 달러)를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였음.
- 국부펀드 기금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331.4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부펀드의 자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 사회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인프라 개발로는 바쿠-트빌리쉬-카르스(Baku-Tbilisi-Kars: BTK) 철도, 사무르-압쉐론(Samur-Absheronaz) 관개시설, 정유 설비 등의 건설이 있음.
- 사회부문의 인프라사업으로는 아르메니아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영토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의 생활 및 정착 지원, '2007-2015 청년해외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

□ 비료공장을 비롯한 석유화학 부문 발전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공사는 바쿠 인근의 숨가이트 지역에 암모니아와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전체 사업비는 7억~7.5억 유로 규모로 평가되며,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
- 국영석유공사인 SOCAR는 바쿠 인근에 40억 달러 규모의 정유 시설과 가스 처리 시설을 갖춘 대규모 석유화학 콤플렉스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SOCAR는 2018년 초까지 외국 투자자를 결정하여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2022년~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의 CNPC, 러시아의 가스프롬은행이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대외거래

□ GDP 대비 0.7%의 경상수지 흑자 기록

-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4년까지 높은 비율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에너지 생산량의 감소와 국제에너지 시장의 가격 하락에 따라 크게 하락하여 2016년에는 0.7%를 기록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 상 수 지	12,047	10,320	-222	264	1,196
경 상 수 지 / GDP	16.4	13.9	-0.4	0.7	3.1
상 품 수 지	21,383	18,928	5,812	3,532	6,403
수 출	31,703	28,260	15,586	12,492	15,503
수 입	10,320	9,332	9,774	8,960	9,099
외 환 보 유 액	14,152	13,758	5,017	4,528	-
총 외 채 잔 액	10,294	11,693	12,109	14,684	14,073
총외채잔액/GDP	14.0	15.5	22.4	41.1	36.5
D. S. R.	6.7	5.2	10.3	13.1	13.7

자료: IMF, OECD, EIU.

□ 상품수지 흑자폭이 감소함에 따라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 2016년의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20% 감소한 12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도 89억 6,0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8% 감소함.
- 수출액의 감소에 따라 외환소득이 줄어들어 외환보유액은 2014년의 138억 달러에서 2015년의 50억 달러, 2016년에는 45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총외채잔액은 늘어나고 있으며, 외채상환비율도 상승 추세

- 총외채 잔액은 2015년의 121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14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율은 41.1%로 2015년의 22.4%에 비해 상승하였음.
- 외채 증가와 수출액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외채상환비율(D.S.R.)도 2015년의 10.3%에서 2016년에는 13.1%로 상승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알리에프 대통령이 2013년 3선에 당선되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대통령 권한 확대 추진
 - 2003년부터 현 알리에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대선에서 3선에 당선되어 201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음.
 - 2009년 헌법개정으로 3선 중임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알리에프 대통령이 2018년에도 4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음.
 - 2016년 9월의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함
 - 알리에프 대통령은 2017년 2월에는 부통령직을 신설하고 현 대통령의 부인을 부통령으로 임명하였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반정부 집회 개최
 -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부인의 부통령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 발생
 - 2016년 9월에는 바쿠에서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집회가 발생한 바 있음.
 - 2017년 4월에는 현 대통령 부인의 부통령직 임명과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비판하는 집회가 약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쿠에서 개최됨.
 - 주요 반정부 인사에 대한 구속, 정부 비판 언론인 구속, 국제 NGO 단체의 아제르바이잔내 활동제한, 국내 NGO 단체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 금지 등의 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높은 물가상승률, 실질소득 감소, 실업률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사회불안 요소로 잠재

-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2014년의 5.4%, 2015년의 6.5%에서 점차 상승하여 7.0%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2016년 1월에는 물가상승과 실업률 상승을 비판하는 시위가 일부 지방에서 발생하기도 하였음.

3. 국제관계

□ 아르메니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속으로 긴장상태

- 1991년에 발생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영유권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4월에는 1994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대 규모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충돌이 지속되어 아제르바이잔의 정치,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음.

□ EU와의 협력 지속

- 아제르바이잔은 EU와 '동방 파트너(Eastern Partnership)' 등을 통해 정치 및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1996년 체결된 'EU-아제르바이잔 파트너 협력(agreement on partnership and cooperation)'을 대체하는 '포괄적 협력(comprehensive cooperation)' 체결이 2017년 2월부터 논의되고 있음.
- EU는 아제르바이잔 수출의 65%, 수입의 33%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석유와 가스가 전체 수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음.
- EU는 가스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지역으로부터 가스 수입을 위한 수송로 연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 구소련의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아제르바이잔을 '동방 파트너' 국가에 포함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중장기 외채가 대부분이며,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

○ 2016년 10월 말 기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 승인 잔액은 단기 2억 9,790만 달러, 중장기 38억 2,080만 달러 등 41억 1,870만 달러임.

- 이 가운데 단기 60만 달러가 연체되었으며 이 가운데 30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7. 1)	5등급 (2016. 1)
Moody's	Ba1 (2016. 4)	Ba1 (2016. 2)
Fitch	BB+ (2017. 2)	BB+ (2016. 8)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아제르바이잔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 출	308,444	269,573	122,865	118,289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수 입	3,361	54	3,404	337	냉난방기, 전자기기, 원동기 및 펌프
합 계	311,805	269,627	126,269	118,626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교수립: 1992년 2월 23일(북한과는 1992년 1월 30일)

주요협정: 항공협정('06), 외교관상호사증면제협정, 투자증진및보호협정, 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협정(이상 '08), 경제협력에관한협정('1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 운전면허증상호인정및교환협정(이상 '13)

□ 대 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2016년 12월말 누계): 21건, 532만 달러

V. 종합 의견

-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은 -2.4%, 마나트화 환율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3%, GDP 대비 재정수지는 -9.9%를 기록하여 경제상황이 전년도에 비해 더욱 악화됨.
-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4월에는 1994년 휴전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무력충돌이 발생함.
- 2016년 9월에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며, 2017년 2월에는 신설된 부통령직에 현대통령의 부인이 임명되었음.
- 대외적으로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이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EU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왔으며, 2017년에는 EU와의 관계 확대를 위한 협정체결을 논의하고 있음.
- 2016년 초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정적자 폭 확대, 외화보유고 감소 등에 따라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씩 하향조정된 바 있으며, 이후 등급이 유지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41.1%로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이 감소함에 따라 외채상환비율(D.S.R.)도 13.1%로 높아지며, 외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됨.

조영관 선임연구원(☎02-6255-5759)

E-mail: ykj@koreaexim.go.kr